



# 가.을.이. 가는 이때

《퀴넷》과 《빙어리장갑》이 필요하구나!

조주희 |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

민순이가 가출을 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왔다. 돌아온 탕자(?)는 포근히 부모님께 안겼다. 담임선생님도 혼내지 않았다. 민순이도 뭘 일 있었냐는 듯 행동한다. 보통의 가출 후 모습과는 판이하다. 왜일까. 왜, 아무도 꾸짖지 않았을까. 왜 본인조차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추리해 보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는 민순이가 남학생, 나이는 열여덟, 고2, 문학반 부회장이란 사실이다. 뭐, 가출 당시 10월 초, 가을바람이 불던 무렵도 단서가 될 수 있겠다. 부족한 단서이긴 하지만, 감도 못 잡겠다면, 당신은 꽤 메말라 있는 편에 속한다.

자, 정답 발표. 민순이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려면 고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출을 해봤어요.” 어이없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메말라 있다. 불량학생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민순이는 불량과는 거리가 멀다.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공부도 잘 한다. 속칭 ‘왕따’ 학생도 아니다. 학급에서나 문학반에서나 꼭 필요한 아이다. 그런 민순이가 말 그대로, 훗날 글을 쓰기 위해, 그 글감을 마련코자 가출을 감행했다. 특이하다고? 맞다. 민순이는 특이하다. 그리고 특별하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12명이나 더 있다. 바로 우리 문학반 아이들이다. ‘김세빈, 김동운, 임평주, 이재웅, 김진우, 김승용, 정진영, 최두진, 이경재, 박현용, 박영재, 오석호’ 이 아이들도 고만고만하게(?) 민순이만하다. 다들 ‘한 낭만’ 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문학의 흐름이 크게 변할 거라고 혼자 상상하곤 한다. 상상이긴 한데, 꼭 현실로 이뤄질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긴다.

‘한번 걸리면 못나오는  
《퀴넷》이 바로 문학이야’

“자, 여기 폭설에 묻힌 열차가 있다.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다. 바로 이쯤해서 살인사건이 난다. 열차 주변에는 어떤 발자국도 없다. 결국 열차 안에 범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승객과 승무원 모두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다. 자, 범인은 누구일까. 아니, 과연 범인이 있는 것일까?”(결말이 궁금하다면 애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특급살인》을 읽어야 한다.)

나른한 오후 수업, 가끔 추리소설을 풀어놓는다. 아이들은 단어 하나에 바짝 긴장한다. 나는 결말 전에 뚝을 잔뜩 들인다. 아이들

은 애가 탄다.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 과자 하나!” 이렇게 경품까지 걸어 놓으면 그 극성은 최고조로 치달는다. “그러니깐 책을 읽으라니깐.” 나는 악울리듯 더욱 느긋해진다.

바야흐로 가을이다. ‘연중행사’ 차원에서 책 한 권 읽어주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읽기에 버거움을 느낀다. 쉽사리 책장은 넘어가지 못한다. 그럴 땐,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애거서 크리스티의 《퀴넷》 ‘맛보기’가 있다.

《퀴넷》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 하숙집이 있다. 주인 부부는 상속받은 낡은 저택을 하숙집으로 개조했다. 서툴지만 첫 손님으로 네 명을 맞아들인다. 처음 찾아오는 손님은 경망스럽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건축가다. 두 번째 하숙생은 신경질적인 중년 부인이다. 그나마 세 번째 손님인 소령은 친절하고 정상적(?)이다. 예고 없이 한밤중에 찾아온 네 번째 손님도 어둡고 음울하다. 눈은 계속 내린다. 바로 이때 한 형사가 스키를 타고 찾아온다. 그는 말한다. 이 하숙집에 다른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숨어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경질적인 중년 부인이 다른 방에서 살해당한다.

자, 범인은 누구일까? 또 '취댓'이 상징하는 건 뭘까? 궁금하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읽다 보면 재미가 붙는다. 그렇게 한 권을 읽고, 그렇게 과학서적도 읽고, 시집도 읽고, 읽고, 읽고... 한참 읽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취댓》은 바로 그 문학의 참 재미임을.

문학,

《병어리장갑》같은 그때스함

얼마 전 문학반은 백일장에 총 출동했다. 결과는 전원 낙방. 경쟁자가 워낙 많았다고 하는데도 세빈이는 "망했다"라며 절망했다. 다음날 마주친 평주는 날 볼 면목이 없단다. 동운이만 이 오기인지 "시집 좀 빌려 주세요"한다. 마침 시집이 없어 소설책을 빌려 주자, 아쉬워했다. 아이들의 실망이 크자 내가 오히려 걱정이 다. 문학이 어디 상을 타야 제맛인가. 퇴근 후, 나는 오탁번의 시집 《병어리장갑》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아빠는 술 마시고 들어오면 나한테 늘 하는 말

이 있다. '에헴, 아빠는 어릴 때 잉크가 어는 방에서 공부를 했다!' 아빠는 이글루에서 살았나? 《병어리장갑》 35쪽 전문)

위 글은 시다. 연과 행을 무시하고 적어서 그렇지, 오탁번 시집에 실린 시 <아빠>가 맞다. 시라고는 하는데, 순진하다 못해 유치하다. 그러나 시인은 어린이가 아니다. 6·25도 경험했을 나이다. 둔개는 더욱 아니다. 현재 그는 국문과 교수다. 하지만 위 시는 백일장에 가면 99퍼센트 낙방이다. 그러니 문학반 아이들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시》

나의 시는 된장항아리 속  
고물거리는 쉬  
권 보리밥쉬귀리  
고추명석 위에 쏟아지는  
가을 띄약별  
초등학교 습자시간  
죽제비털 붓끝에  
서투른 궁서체로 피어나던  
어머니 어머니 (75쪽 전문)

시인에겐 시가 쉬파리다. 하찮다는 말인가. 어머니라니, 절실하던 소린가. 이렇듯 시인에게도 시가 여러 느낌인데, 하물며 아이들 이야. 문학반 아이들은 시에 대해서 고민한다. "어려운 시가 좋은 건가요? 쉬운 시가 좋은 건가요?" 반면, 수업시간의 아이들은 시 때문에 고민한다. "느껴봐" "뭘요?" 밑줄부터 그으려는 아이들. 이 모두에게, 따스한 《병어리장갑》이 필요하다. 읽다보면 알 것이다. 시를 못 써도 시요, 잘못 이해해도 이해한 것이 시라고. 어디 '어머니'라는 글자가 서예가만 써야 멋진가. 서투른 글씨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느껴진다.

문학이 제철을 맞이했다. 제철 음식이 맛있듯, 요새 날씨는 책 맛을 돋운다. 책마다 알싸하고 씹쓸하다. 입맛대로 골라보자. 가을은 짧다. 후딱 가기 전, 맛 좀 보자. 가을철 독서 삼매경. **추천**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



《취댓》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 유명우 옮김 | 해문출판사 | 296쪽 | 값 8,000원

《병어리장갑》 오탁번 지음 | 문학사상사 | 110쪽 | 값 5,000원